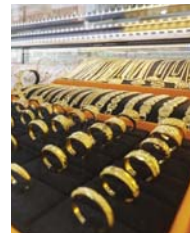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23.02 (-6.42)	845.44 (-0.38)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489 (-0.023)	1378.30 (-0.90)

K-주얼리 수출
19년만에 최대
경쟁력 제고 지원 필요
02



“하반기까지 어렵다”... 석화업계, 자구책 마련 안간힘

글로벌 공급과잉에 中 경기 부진
실적악화 속 친환경 전환도 부담
롯데, 공장 직원 전환배치 검토
LG화학·금호석화 ‘희망퇴직’
4社: 평균급여 전년비 15.2% ↓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화업계가 구조조정을 비롯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울산 공장의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공장은 범용 플라스틱 소재인 PET(페트)를 생산한다. 중국의 공세에 밀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장 가동을 줄이고 일부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운영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첨단소재사업부도 이달 생산기술직 근속 5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익성이 떨어진 IT필름(LCD 용 편광판 소재) 사업의 매각 이후 인력 조정을 위한 조치다. 당시 희망퇴직과 인력 전환을 단행했지만 추가 조정이 필요했다.

금호석유화학도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중국기업과의 라텍스 합작공장 지분 절반을 올해 다른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석화업계 불황의 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더불어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아울러 고유가에 원가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와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에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고 있다.

석화업계는 지난해 평균 급여를 낮추고 성과급 등 특별급여 지급을 줄이며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 석화 4사(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석화)의 평균 급여는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5900만원) 15.2% 낮아졌다. 임원 급여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임원 평균 급여는 2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

8700만 원) 대비 4.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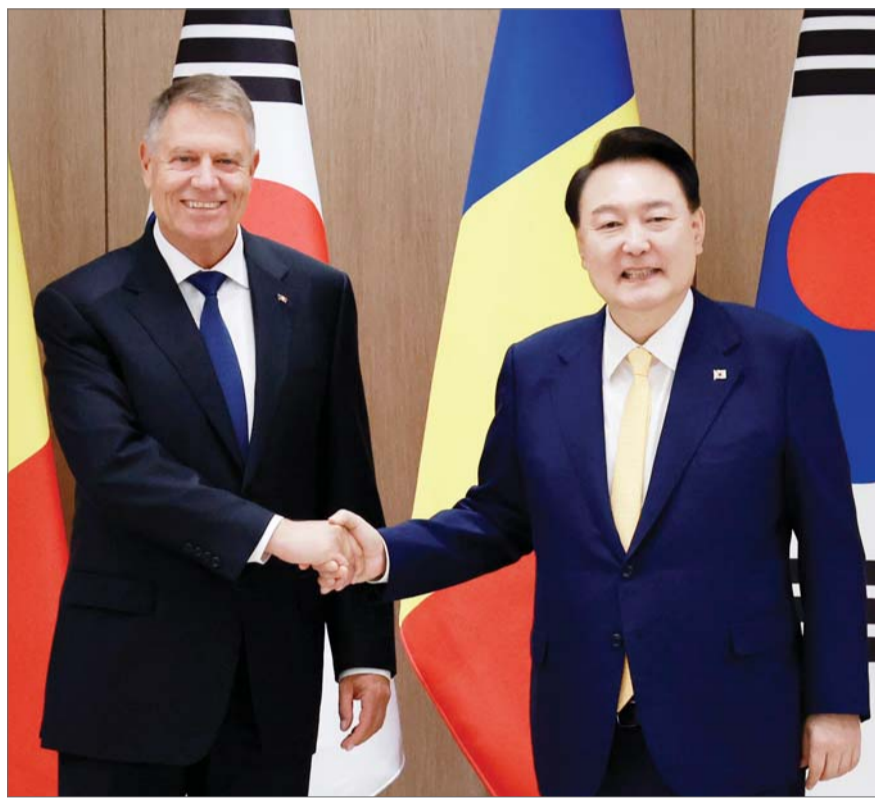
또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호황기를 겪었던 당시의 성과급과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다.

LG화학의 경우 작년까지는 사업 부문별로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낸 사업본부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석화업계 전체적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다”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등 수익성 악화에서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의 재기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꾸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업계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지역 정세 대응 공조 무기수출·원전협력 강화

韓-루마니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한 뜻’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23일 ‘한-루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원전은 물론 교역·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5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이 첫 방한이며,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6년을 맞은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치·안보 ▲경제 협력·투자 ▲문화·교육·인적 교류 등 3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를 살펴보면 양국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 대응에 공조하고, 국방협력 협정을 통한 무기 체계의 대(對)루마니아 수출 확대와 군사장비 등의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

또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군사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 상생의 방산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방·방산 현안 논의를 위한 국방부 간 실무협의체(국장급) 개설 추진에도 합의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원전협력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체르노보더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수주 이후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 중 두산 에너지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찰하고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협력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의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서예진 기자 syj@

中企 대출연체 급증에 지방은행 ‘빨간불’

5개 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中企 21.7% 늘어 전체의 93% 차지
장기불황에 매출 감소... 연체율 ↑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 대출연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지방은행은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해 건전성 개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채권) 규모는 6988억원이다. 지난 2022년 말 기록한 5954억원에서 1034억원(1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59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364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1165억원(21.7%) 늘어 전체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의 93%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불황에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대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분기 기준 4.2%에 달했던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에는 -1.2%를 기록해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분기 -2%, 3분기 -2.7%로 감소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연체가 늘면서 전체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은행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했다.

금융감독원 은행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91.7%(광주 95.4%·전북 94.3%·경남 92.1%·부산 91.1%·대구 85.8%)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72.7%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개 지방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기록한 0.35%에서 0.17%포인트(p) 상승한 0.52%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0.26%)의 두 배에 달한다. 높은 연체율은 대손준비금 등 리스크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신규 대출 취급을 어렵게 해 은행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은 약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7.3%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 지방은행은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5개 지방은행의 잔여 대기업 대출액은 전년 대비 17%(1조9786억원) 증가한 13조375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4%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각 지방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다소 고충을 겪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어” /사진 뉴스1
▲ 與, “영수회담 환영... 25만원 지원금 반대”

▲尹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 진행
▲ 안철수 “尹, 이제 정식 기자회견 해야 할 때... 잘못된 점 반성해야”



▲ 조국, 이재명에 “尹과 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 공개 제안
▲ 홍익표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변화 시작... 자신이 바뀌어야” /사진 뉴스1